

집을 나간 아들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은 적이 있나요?
그래도 부모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실까요?

어떤 마을에 항상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집을 멀리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많은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계속 고집을 피우자 하는 수없이 아들에게



기억절

“주는 선하사 사유
하기를 즐기시며”
(시편 86:5)

중심생각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큰 도시로 갔습니다. 파티를 하고 돈을 낭비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친구들도 그를 떠났습니다. 잘 곳도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돈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일은 돼지 우리를 청소하는 일 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냄새

나고 더러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해주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서 하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부탁해야지. 용서해주시지 않아도 그 부탁은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후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 멀리서 집을 향해 걸어오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는 하인이 되겠다는 아들을 용서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주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잘못을 이야기하면 항상 용서해 주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8-10,
실물교훈 192-197



참고서적



기억절을 세 번 읽고 따라 써보세요.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시편 86편 5절



돼지 그림을 색칠해보세요.



자신이 잘못했던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용서의 기도를 해보세요.



용서